#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슬픔

## (사무엘상 20:1~42)

35.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36.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37.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38.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39.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0.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41.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슬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슬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서 울 때에 '아이고 아이고'라는 소리를 냅니다. 이 '아이고'라는 말은 한자의 슬플 애(哀)자와 아플 고(苦)자를 써서 '애고(哀苦)'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애'의 느린 소리가 '아이'로서 '아이고'는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자의 자형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데 애고의 슬플 애(哀)는 옷의(衣)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로 입 구(口)자가 들어갑니다. 옷 의(衣)는 옛날에 두루마기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슬플 哀는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입을 옷 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옷깃을 의미하는 옷 의(衣)자의 윗부분과 옷을 입은 모양의 두 팔과 옷깃이 서로 교차되는 모습의 아랫부분으로 입 구(口)자가 들어갔으니 옷 사이에 자기의 입을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입을 옷으로 틀어막는다.'는 것은 입은 먹고

말하는 것이고 옷을 입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뜻하는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먹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화를 통해서라도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먹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회생활 자체를 하고 싶지 않게 되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기쁜 일이 생기면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며 누가 묻지 않아도 기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슬프다'는 sad인데 이 말의 어원을 보면 고대 영어의 'satisfy(만족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배부르다'는 뜻의 'satt'라는 단어도 바로 '만족하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배부르다'는 말이 '슬프다'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슬픔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나 슬퍼하는 일로 채워지는 것이나 채워지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마음을 채우는 상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더라도 무병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가장 슬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슬픔이 아닌 제일 완전한 슬픔은 무엇일까요? 슬픔도 슬픔 나름이라서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님에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가짜 슬픔이 많으므로 불완전한데 슬픔 자체가 가짜인데도 당사자는 진지하게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참 슬픔의 특권은 선민에게만 주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선민에게 제일 좋은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지금 이 상태보다 좋은 방면으로 다르게 구분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 이상의 다른 좋은 것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극상의 좋으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갖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슬픈 일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슬픔이고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럽게 죽어 가시는 과정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인지상정으로 울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눅23: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슬퍼보여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아버지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를 가져야 한다는 감도 못 잡고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슬퍼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슬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우신 이유는 육체적인 이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셔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이별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복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음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읽은 부분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고 다윗은 10년이 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도피의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슬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선민만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슬픔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11절까지의 단락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하는 살해 의지의 결연함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으로서는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자신이 그것을 말렸고 사울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부탁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사실 그 뒤로 미갈이 사울의 자객으로부터 다윗을 구했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했을 때에도 무려 자객을 세 번이나 더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못하자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 왔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요나단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함을 알았기에 요나단이 슬퍼할까 알리지 않았고, 또한 알려졌을 경우에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일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울의 의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사울 왕의 음모를 겪었던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고, 단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대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러한 부탁을 한 이유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과 완전한 결별을 하고 도피 길에 올라야 하는데 요나단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일곱 형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자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왕의 아들로 차기 왕의 후계자로서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다윗에게는 혈육보다 더 귀중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와의 완전한 결별의 자리에서 이러한 요나단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고 다윗은 헤어질 때에 요나단보다 더 슬퍼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극단적으로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재한 이후로는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

울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기가 곤란하므로 요나단 스스로 경험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헤어질 때 더 슬퍼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요나단과 다윗의 슬픔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형제이고 동료였기에 헤어짐에 대해서는 똑같이 슬퍼했지만, 다윗이 더 슬퍼했던 이유는 요나단만이 갖는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인데 이 슬픔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한 고지의 방법에 숨어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하여 들판에 숨어있으라고 하고 화살을 세 개를 쏩니다. 화살을 허공에 쏘아서 아이에게 가져오게 하는데 그 아이 앞으로 화살을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죽일 것이 확실하므로 숨어있던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것이었고, 아이의 뒤로 화살을 쏘면 죽이지 않을 것이니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고하므로 아이를 지나쳐서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주워서 궁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후에 또 둘이 만나서 입을 맞추고 절하고 서로 슬퍼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왜 화살을 쏘고 번거로운 행동들을 했느냐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요나단이 압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던 것이 과거형이 되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얘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으면서 그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저주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져도 자기의 친아버지입니다. 슬플 애(哀)가 입을 옷에 파묻고 말하지 않는 것인데, 아버지가 영원한 저주에 처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고지의 방법을 정한 것인데 다윗이 알았습니다. 친아버지가 영원히 저주에 처하게 될 것을 안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가지기를 생애의 사명으로 안 사람입니다. 획득하는 경주에서 벗어나서 버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왕위는 버리라고 주시는 것이고 왕위에 올랐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위가 다윗에게 가는 것을 조금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바로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과의 육체적 이별의 순간이 곧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의 영원

한 결별의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슬퍼하고 두려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주에 처한 아버지와 함께 행동해야만 하는 요나단이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자신까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으나,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와 나랏일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만의 슬픔을 알았기에 요나단보다도 더 슬퍼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슬픔은 다윗과 헤어지는 것만 슬퍼하면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와도 영원한 이별을 해야만 하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에 맞지 않을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 사랑하는 나의 요나단!'이라고 하면서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슬퍼할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은 선민이 이 땅에서 슬퍼할 수 있는 유일한 슬픔이요, 가장 완전한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좋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에 다가오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으로서, 하나님 잃은 슬픔으로 이를 갊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완전한 슬픔을 아는 자들로서 기쁨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일들로 슬퍼하며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진정한 슬픔을 아는 자로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